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다짐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차기 사장 후보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 회사가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합류할 직원대표(평사원/부장) 2명의 선임을 노조에 요청함과 동시에 차기 사장 선출이라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무도한 윤석열의 계엄 후폭풍으로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경제 상황 역시 당분간 최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제1야당 대표가 SNS와 공식석상에서 이른바 CBS의 좌표를 찍기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할 사장은 CBS가 직면한 이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기에, 신임 사장 선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3대 노조는 사추위에 합류할 직원대표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의 준수’와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노조는 CBS 직원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직원대표를 선출하고, 사추위에서 이들의 의견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사장이 확정되는 4월 22일까지 약 2개월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60일 동안 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사장 후보나 사추위 직원대표 후보(혹은 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마타도어(흑색선전)는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자신이 들은 소문일지라도 확실한 근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한 이야기들은 전파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사장 선출 과정에서 능력 있는 사장 후보와 직원대표 후보들이 등장하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사장 선거가 끝난 이후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차기 사장 후보들에게는 ‘클린 선거’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보다 자신이 펼치고 싶은 CBS의 미래를 공청회 등의 정당한 기회를 통해 제시하는 데 주력해 주십시오. 사장 선거 과정 가운데 금품이나 이권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부당 행위를 인지하신 분들은 노조에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노조는 이사회와 함께 당사자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은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BS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약 2개월 간 신임 사장 선임 레이스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후보들과 CBS 전 직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5. 02. 24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